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스승의 주일

오늘 주일(5.17) 오전 11시 예배는 스승의주일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부 : 박제연 이광근 정현숙 (보조:한희락 한은총)
청소년부 : 임명순 임명숙
청년부 : 임명자
구역교사 : 정현숙 박제연 이광근

3. 성령강림주일(오순절)

다음 주일(5.24) 오전 11시 예배는 성령강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4. 구역예배

일시 : 2026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교회출발 1:20)
장소 : 박제연 집사
다음 : 정현숙 권사

5. 청소년 예배 시간 변경

청소년예배 예배시간을 매주 토요일 저녁 6:00로 변경합니다.

6. 2026년 5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3.15 ~ 4.15)

5.25(월) 문제호 형제 5.27(수) 임명자 집사(-4.11) 5.28(목) 박수진 자매

가정과 사랑의 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5/17	스승의 주일
05/24	부부 주일 / 가정의 주일 성령강림주일 / 성결교회주일
05/26	아하브코업 홈스쿨 5월 정기모임
05/30	삼위일체주일 / 선교환신예배
06/01	찾날맞이 일석예배 (성전)
01~05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호국기도회
06/03	제 9회 정국동사지방산거
06/06	산상기도회(잔향)기념 순교자제
06/07	농어촌 선교주일 여름사역 위한 준비모임
06/14	환경주일
06/21	특수전도주일
06/28	통일선교주일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정자동(10:00) ▶화서동(10:10) ▶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정자동(13:40) ▶화서동(13:50) ▶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령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당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05/17 박제연 집사
05/24 이광근 안좌
05/31 임명자 집사
06/07 임명숙 집사
06/14 김혜숙 권사
06/21 정현숙 권사
06/28 박제연 집사
07/05 이광근 안좌
07/12 임명자 집사



주사랑 9권 20호 | 2026년 5월 17일
창립 2017.11.25 | 부활후 여섯 번째 주일 / 스승의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스승의주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GODpeople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스승의 주일) 인도: 한승훈 담임목사

※ 목 도 고전 4:15~16 인 도 자

※ 송영찬송 찬 16장 다 같 이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83 빌립보서 4장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452장 다 같 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대 표 기 도 박제연 집사
(교회학교 교육부장)

※ 성경봉독 고전 11:1, 잠 5:9-14(신 275) 박제연 집사

특 송 스승의 은혜 다 같 이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좋은 부모와 참된 부모 담임목사

봉헌찬송 찬 516장 다 같 이
(오병이어헌신 : 한성결 형제)

※ 축 도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1:30 한승훈 목사

대 표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24:1-51 (신 41)

말씀제목 종말의 때 끝까지 견디는 믿음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 요 저녁예배

오후 7:30 (조직신학)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갈라디 5:13-15 (신 308)

말씀제목 조직신학 : 자유의지(自由意志)

목 요 구역예배

오후 15:00 말 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20:12-21 (구 598)

대 표 기 도 말 은 이

말씀제목 은혜를 지속적으로 자는 삶

금 요 심야기도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7:1-11 (신 176)

말씀제목 스승인 예수님의 기도

새벽 기도회(월~금)

새벽 5:30 사무엘상 16:1-13

17일(일) 마 24:1-51 종말의 징조들과 준비

18일(월) 삼상 6:19-7:2 아브람 성도의 수처심

19일(화) 삼상 7:3-11 주만 삼는 자의 승리

20일(수) 삼상 7:12-17 아브라함의 증거와 평화

21일(목) 삼상 8:1-3 공의를 잃어버린 지도자

22일(금) 삼상 8:4-9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⑥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의 자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답전 3:1~7)

미쁘다 이 말이며,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할 것이 없으며 ()의 남편이 되며 ()하며 ()하며 ()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⑦ 사도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의 자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답전 3:8~13)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고 ()하지 아니하며 ()하며 모든 일에 ()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⑧ 사도 바울은 거룩한 직분자가 세워가는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나요? (답전 3: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요 ()의 기둥과 터니라

⑨ 사도 바울은 성도가 신앙의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답전 4:4-5)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매 ()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과 ()로 거룩하여짐이라

⑩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무엇을 연단하라고 권했나요? (답전 4:6-8)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작성하신 답안은 주로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를 해드립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함에 작성 드립니다 / 입금: 2026.05.16. AM 6:00 기한)

십 일 조 : 이광근박제연 한은총 한희락 정현숙 한승훈임명순 / 한성결

주정현금 : 김혜숙 문재호 박제연 오동영임명숙 이광근 정현숙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한희락

감사헌금 : 김혜숙 이광근박제연자녀 전복순 정현숙 한승훈임명순 / 아브라함

월삭감사 : 이광근박제연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성결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한희락

선교헌금 : 이광근박제연 / 오복상방애경

건축헌금 : 이광근박제연

차량헌금 : 나승완 장영미

후원헌금 : 독지교회 개인후원하나은행 농협(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오주교훈음스쿨)



해외선교(모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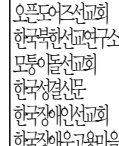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탈북민선교(평화나루교회)



기타 기관 선교



- 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율법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딤후 1:5~8)
이 교훈의 목적은 ()과 ()과 ()에서 나오는 ()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임을 우리는 아노라
- ②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죄인 중의 죄와 같은 존재였음에도 충성된 중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딤후 1:16~17)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들에게 ()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 ③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무엇을 가져야한다고 권면하나요? (딤후 1:18~19)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을 따라 그것으로 ()을 싸우며 ()과 ()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 ④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당시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위정자들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나요? (딤후 2:1~4)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와 ()와 ()와 ()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을 받으며 ()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⑤ 사도 바울은 각 처소에서 모든 남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을 당부 하나요? (딤후 2: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5월의 북한중보기도 - 가정의 달을 지내며 드리는 기도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스 8:3~7)

- ① 북한 어린이들을 구원하소서. UNICEF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0~14세 약 500만의 어린이들 중 약 20%가 발육부진 상태이며 성장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 식량과 의료 부족 및 왜곡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는 북한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육체적 성장과 함께 영혼이 진리 가운데서 자랄 수 있는 환경도 허락 하소서. 북한 어린이들이 장차 복음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소서.
- ② 노약자들과 임신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소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과 공급이 허락되게 하시고, 임신부와 태아들의 생명을 안전 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의료 자원 부족 가운데 굶주림과 헐벗음에 놓여 있는 연약한 생명을 돌보아주소서.
- ③ 북한의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경제난과 생존의 어려움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고,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북한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존의 위기 속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돌봄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부모들에게 생계를 감당할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켜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상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북한의 가정마다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한 교회가 통일 이후 북한의 무너진 가정을 돌보고 세우며 치유하는 사역을 잘 준비하게 지혜를 주소서.
- ④ “제2차 북한성결교회 재건프로젝트”의 재건 결연사업이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시되 북한에 무너진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결교회들 안에 부어 져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결연하여 재건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89개의 결연교회들 각 교회마다 무엇보다 재건을 위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더욱 구체적인 재건의 준비들이 각 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잘 섬기며 안내할 수 있는 북한성결교회 교회재건소위원회가 되도록 기름부어 주옵소서.
- ⑤ 통일선교훈련원에 북한을 바로 알고 북한선교의 미래를 위해 각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다음 학기의 강사들과 섬기는 이들과 학생들이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 받는 다음 학기로 잘 준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 ⑥ 북한에 재건되어 세워질 성결교회들을 세우고 함께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잘 훈련하여 준비시키는 성결교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탈북민 신학생들이 서울신대에 많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북한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강력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선교위원회가 이를 잘 섬기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732	북아라미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하 17:1-4
찬송가	 찬 274장	다	같이	722	북아라미의 멸망과 이유	왕하 17:5-23
대표기도		말	은이	720	사마리아의 앗수르 이주민들	왕하 17:24-41
성경봉독	 왕하 20:12~21	윤	독	715	남유다 히스기야의 등극	왕하 18:1~16
말씀인도	 은혜를 자속적으로 받는 삶	말	은이	701	산헤립에 의한 앗수르의 3차 침공	왕하 18:17~37
합심기도		다	같이		히스기야의 기도과 하나님의 응답	왕하 19:1~37
헌금기도	 찬 279장	말	은이		병든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하나님	왕하 20:1~11
주기도문		다	같이		바벨론 사절단의 의도적 방문	왕하 20:12~21

■ 들어가는 말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을병을 고침 받았고, 15년 동안의 생명 연장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죽을병에서 치유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교만에 빠져서, 바벨론 사절단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자신의 모든 부와 힘의 근원을 보여주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자랑한 모든 보물과 재산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나라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심판의 메시지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히스기야 왕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죽을병 앞에서 하나님의 공로를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있습니다.

왜 치유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예언을 받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교만의 독으로 만든 히스기야 왕의 오만의 원인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 겸손의 분별력을 잃은 히스기야의 착각입니다(12~13).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의 회복의 소식을 듣고 급히 사절단을 보냅니다. 브로닥 발라단은 앗수르 왕 사르곤 2세 원년에 앗수르에서 반란을 일으켜 12년간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사르곤 2세에게 추방당한 인물입니다(BC 722~710). 그러다 사르곤 2세가 죽게 되자(BC 705) 다시 반란을 일으켜 보르시파와 근처에서 통치했고, 2년 후 산헤립에게 폐위된 인물입니다(BC 703). 그 후 엘람으로 망명한 후에도 산헤립과 지속적인 교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바벨론 왕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치·외교적 상황에서 남유다 왕국에 사절단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히스기야 왕은 반 앗수르 정책을 세우려 했고, 정치·외교적 야욕을 품고 있던 브로닥 발라단은 많은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순수한 동맹의 관계를 위함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이용하려고 했던 속셈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치유의 사실과 15년의 생명의 보장 그리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바벨론의 의탁을 기뻐하게 됩니다(사 39:2). 표면상 바벨론의 방문은 병문안이었지만, 반 앗수르 정책의 동맹의 관계를 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에 대해 ‘기적의 치유’, ‘생명의 연장’의 증표를 통한 하나님의 찬양이어야 했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대하 32:31). 히스기야 왕의 자랑은 오직 금과 은, 향품과 기름,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사절단에게 보여준 일들만 기록돼 있습니다(13). 히스기야 왕은 치유를 비롯한 일련의 상황을 마치 자기가 노력하여 만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겸손의 유효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까지만이었습니다. 병이 낫고 나라가 안정되자 곧바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성전 된 마음의 공간’이 점차 사라진 것입니다. 반 앗수르 동맹을 강화할 목적으로 예물과 편지를 보낸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예물과 군기고 그리고 창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준 행동은 히스기야 왕 자신의 경제력, 군사력, 통치력을 과시하려는 ‘분별력 잃은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만큼 히스기야는 성전 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핵심은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대신 자기를 세우려는 사교의 영역에 있습니다. ‘나’ 중심의 착각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의 망각’과 ‘자기 과시’는 영적 분별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교만의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교만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14~19).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사절단에게 ‘무슨 말’을 했으며,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왔냐고 의견을 묻습니다(14~15).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행한 행동을 몰라서가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속내를 알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먼 땅’ 바벨론에서 왔다고만 대답하고(14), 바벨론과의 동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사 30~31장). 이런 질문은 히스기야 왕의 의도를 모두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따르면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기록합니다(대하 32:31). 하나님의 시험은 궁지에 빠지게 하여 심판을 내리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순종하는 지에 대한 기대입니다(창 22:12~16).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교만에 빠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대하 32:25).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16). 첫째 히스기야 왕의 모든 소유와 선왕들이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에게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궁과 군기고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여준 행동에 빚든 예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 바벨론을 신뢰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했던 죄목임을 나타냅니다. 이 예언은 약 115년 이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될 때 성취됩니다(BC 586, 왕하 25:13~17, 대하 36:18). 둘째 왕의 자손 몇몇은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환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대하 36:20).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여호와와 말씀이 선하니이다’라고 대답만 할뿐입니다(19).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회개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해 회개라는 용기와 결단 있는 거절이 아니라, 순응이라는 비겁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회개해서라도 심판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경험은 언제나 교만함의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피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이기심을 조심해야 합니다(20~21).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수용합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핑계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섭섭하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응할 뿐입니다. 심판의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회개 대신 ‘자기 때만 평안하면 된다’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경건함과 어울리지 않은 이기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제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만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신앙은 말 제체가 모순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늘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